

몬테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9월 6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3. 말씀 리뷰(Word): 롯기 강해(5) -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 롯 2:1~7

영어로 변화는 CHANGE입니다. G를 C로 바꾸면 CHANCE, 기회가 됩니다. 기회를 얻고 싶다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롯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은 이삭을 줍는 것조차 “내가 은혜를 입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것이 많아질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롯이 텅 빈 1장에서 풍성한 4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시작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삭줍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삭줍기는 당시 가장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롯은 그 일을 기회로 여기며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성실함이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돌팔매질을 익혔고, 하나님은 그것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작고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작고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기회의 시작으로 사용하십니다.

3.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롯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만남은 보아스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롯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말로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섬기고 낯선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롯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뭣은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내가 다시 감사해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2. 뭣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인 이삭줍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고 평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3. 뭣은 좋은 만남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 나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5.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뭣처럼 작은 것에도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변화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자

설경옥

아무 도 예배하지 않 - 는 - 그곳에서 - 주를예배하리라

- 아무 도 찬 양 하 지 않 - 는 - 그 곳 에서

- 나주를찬 양 하 리라 - 누구 도 헌 신 하 지

않 - 는 - 그 곳 에서 - 주께헌 신 하 리라 - 누구

도 증 거 하 지 않 - 는 - 그곳에서 - 나주를증거하리라

- 내가 밟는 모든땅- 주를예배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여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곳- 주의거룩한곳

되 게 하 소서 - 주의 향 기로 - 물 들 이 소서 -